

비상대책위원회 출격 준비 완료!

1만 자영제과점 단결만이 살 길

지난 6월 자영제과점의 뜻을 모아 공식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까지 투쟁자금 모금·사무국 조직·정보수집 등 투쟁을 위한 물밑작업에 온 힘을 쏟았다. 10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는 이동통신사와 거대제빵기업의 시장질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본격 활동이 전개된다. 글과 사진 김미선 기자


지난 9월은 거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자영제과점의 성난 목소리로 전국 제과업체가 들쭉들쭉했던 한 달이었다. 지난 6월 23일 자영제과점의 뜻을 모아 공식 출범한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9월까지 투쟁자금 모금, 사무국 조직, 정보수집 등 투쟁을 위한 물밑작업에 온 힘을 쏟았다. 앞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는 이동통신사와 거대제빵기업의 시장질서 왜곡행위를 사회·정치·문화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비대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될 계획이다.

지난 8월 29일 비대위 최원도 공동위원장은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사)대한제과협회 기술발전기금 업체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비대위 활동의 정당성과 전체 제과업체의 연대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제과 관련업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난 업체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제과기술의 뿌리이자 발전의 씨앗인 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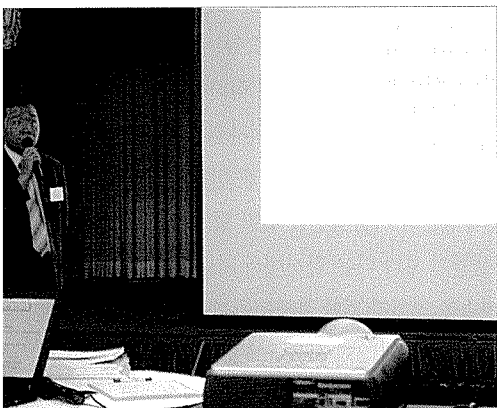
제과점의 몰락은 제과업계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했다.

한편 비대위는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사무국을 새롭게 구축했다. 탁정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각종 매체 홍보와 총무 담당자를 임명하고 계획 수립과 대외협력을 담당할 비상근 요원도 앞으로 투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차차 섭외할 계획이다. '자영제과점 생존권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탁 국장은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금인하 요구가 줄을 잇는 가운데 마땅히 기술개발에 투자돼야 할 자금이 또 다른 거대기업과 손잡고 영세 자영업자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마케팅 비용에만 집중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이동통신사, 청와대, 국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투쟁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9월 23일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중앙회장, 비대위 공동위원장 6명과 사무국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투쟁기획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가자들은 "투쟁의 성패가 자영제과점의 단결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제과인 참여를 독려할 투쟁 소식지 발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결속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8명의 공동위원장이 직접 지방을 순회하며 투쟁 분위기 조성 및 자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10월 본격적인 투쟁을 앞둔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기업의 횡포에 시름하는 전국 1만 자영제과점의 하나된 목소리를 사회 이곳저곳에 퍼뜨리기 위한 출격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시작이다. 

대구·경북지회	2천27만 원	거제시지부	100만 원
인천광역시지회	1천만 원	박천회 명장	100만 원
과기회	1천만 원	경산시지부	100만 원
수원시지부	595만 원	남양주시지부	101만 원
울산광역시지회	578만 원	성동·광진지회	89만 원
광주광역시지회	503만 원	허군자	70만 원
안산시지부	403만 원	오산시지부	60만 원
부천시지부	393만 원	통영시지부	50만 원
마포지회	353만 원	동해시지부	21만 원
서부지회	311만 원	김천시지부	30만 원
거암회	300만 원	선우출력	30만 원
마산시지부	300만 원	도봉지회	13만 원
남부지회	286만 원	창원시지부	6만 원
강남·서초지회	283만 원	강북지회	3만 원
동부지회	280만 원	강서지회	3만 원
안양시지부	234만 원	강원도지회	3만 원
강동·송파지회	203만 원	대전광역시지회	3만 원
양천지회	200만 원	부산광역시지회	3만 원
의정부지부	200만 원	성북지회	3만 원
청주시지부	200만 원	영주시지부	3만 원
포항시지부	200만 원	중부지회	3만 원
316과지연구회	200만 원	전주시지부	3만 원
평택시지부	178만 원	정읍시지부	3만 원
시흥시지부	174만 원	김병국	3만 원
로씨(주)성심당	150만 원	김혜민	3만 원
군포·의왕지부	140만5천 원	이연옥	3만 원
익산시지부	113만 원		
총계		1억 1천 613만 5천 원	



지난 9월 23일 열렸던 투쟁기획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투쟁의 성패가 자영제과점의 단결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8명의 공동위원장이 직접 지방을 순회하며 투쟁 분위기 조성 및 자금 마련에 나설 계획을 수립했다.